

“尹 내란죄 탄핵소추 사유 빼도 국회 재의결 필요 없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100여명 학술토론회 “내란죄 철회 논란 부각은 탄핵심판 지연시키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쟁에서 내란죄를 빼더라도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죄 철회 논란을 부각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중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12·3 계엄에 대한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이 논의됐다.

헌법학자 회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최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쟁점 제외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 재작성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의견에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현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쟁점에 포함했다가 제외된 바 있어 현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가

장 중요한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제적·절차적 위헌성”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하완중 전남대 법원원 교수도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형사재판적 논점을 주장하더라도 현재가 이를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단지 형법상 내란죄 적용만 철회하는 것은 소추위원이 별도의 국회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법원원 교수는 “소추위원은 변론과정에서 소추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를 정리하고 유형·단순화 할 수 있다”면서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현재는 헌법 위배에 대한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판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맥락에서 국회측 소추위원(형사소송법상 검사)은 법원(현재) 허가로 적용법조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법원(현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예외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권한대행은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거부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의 임명은 대통령의 제한적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문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이어졌다.

임 교수는 “한 총리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상 지위는 권한대행일 뿐”이라면서 “국무총리로 탄핵이 된 것이 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탄핵 정족수는 법리적으로 과반수가 맞다는 의견을 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수 연세대 법원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절차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고 오히려 ‘계엄을 빙자한 내란’, ‘내란의 도구로 오용된 계엄’”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자신의 안위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탄압을 위한 히든카드나 비상 무기 또는 꽃놀이 패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12·3 계엄 본질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실 패한 친위 쿠데타’”라면서 “차후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 노사민정, ‘GGM 노사 상생·협력’ 촉구

강 시장 주재 올해 첫 회의 입장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파업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측에 노사 상생의 틀 안에서 협력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 사업 범시민적 역할 결집,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적 합의 도출, 실업 및 고용 대책, 노사민정 협력 방안 등을 심의·협조하는 기구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와 노사 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중재조정위원회를 통해 GGM 노사 양측의 상생 노력을 촉구했다.

GGM 노조는 지난해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90%에 육박하는 노조원이 파업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조는 “격려금 차별지급 결정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회사와 주주단이 노골적으로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은 최근 노사 대화가 중

단되고 대내외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상생·협력의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경제모델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라면서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 광주시민 모두의 경제적 희망과 연결된 만큼 GGM 노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 국민은 안중에 없다

▶1면에서 계속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도 연일 흔들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재판부와 야권 간 모종의 교감설”까지 제기하면서 도를 넘은 여당의 ‘현재 흔들기’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또 “GGM은 개인이 아닌 광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물이기도 하다”면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이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세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노사의 상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GGM 노사가 상생·협력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신속하게 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5년 설 승차권 예매 안내

■대상기간: 2025. 1. 24.(금) ~ 1. 29.(수, 설날) ~ 2. 2.(일), 10일간
무궁화호 이상(관광전용열차 포함) 열차 승차권

■예매방법: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및 일부 전화접수 ※현장발매 없음

■예매일정: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2025. 1. 6.(월) ~ 1. 7.(화), 전국민 2025. 1. 8.(수) ~ 1. 9.(목)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서 지정한 교통지원대상자에 한함

대상자	일자	시간	방법	매체	대상 노선	비고
사전예매 일반인	1. 6 (월)	09:00	전화접수	고속열차(무궁화호 이상)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충남내륙·경북선	1544-8545
		15:00	온라인	전통열차(의정부·의령)		
국가유공자 (교통지원대상)	1. 7 (화)	09:00	전화접수	고속열차(무궁화호 이상)	호남·전라·강릉·경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1544-8545
		15:00	온라인	전통열차(의정부·의령)		
일반예매 전국민	1. 8 (수)	09:00	온라인	전통열차(의정부·의령)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충남내륙·경북선	일반인 경로·국가유공자·교직원에게만 예매 가능
		15:00	온라인	전통열차(의정부·의령)	호남·전라·강릉·경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	

※ 전역서 판매: 2025.1.9(목) 15:00부터 역 창구·홈페이지·코레일톡 등에서 상시 발매

■예매매수: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4인 동반석 1세트는 4매로 한정)

■결제기간: 2025. 1. 9.(목) 15:00 ~ 1. 12.(일) 24:00 (웹, 홈페이지에서 결제)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되며,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는 고객센터 전화 결제 가능(~1.15.(수))

■반환율(약) 2025. 1. 24.(금) ~ 2. 2.(일) 설 명절기간 적용

구분	기말 ~ 출발 21일 전	출발 14일 전	출발 7일 전 ~ 31일 전	출발 당일 ~ 출발 2000시간 전	출발 후 600시간 이내	도착시간 7시간 이내
반환	400%	5%	10%	20%	30%	40%

■기타 안내

- 전용홈페이지(www.letskorail.com)는 2025. 1. 3.(금) 14시부터 사전 체험 가능
- 명절승차권은 KTX, 마일리지, 일반열차 할인쿠폰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할인상품(카드도움말), 자유석, 자전거 거치대(NTX-정촌 제외), 노약자석
- 2025. 1. 24.(금), 1. 27.(일), 1. 31.(금) 포함 설 명절 기간 중 미운영
- 동일(단일) 시간대 중복 예매, 단거리 구간 예매, 승차구간 변경 불가
- 도움말에서 하차하는 경우 전역 창구 운영은 반환율에 적용

“설 열차 승차권 예매하셨나요”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난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했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

진도 신혼부부·청년도 ‘만원주택의 행복’

전남개발공사와 협약...한달 임대료 1만원 주택 60호 내년 준공

진도군민이 되면 한 달 1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전용면적 60㎡(청년)에서 84㎡(신혼부부)의 세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다. 이를 위한 각각 30호씩 모두 60호의 세입이 2026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예산은 전남도가 150억원, 진도군이 3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와 진도군은 8일 진도군청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력에 착수했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만원’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청년은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협약이 진도군의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진도군과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월 중 공사 착공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테리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존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리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당회사는 2025년 1월 9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413,090,000원 중 금 14,500,000원을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주주들의 청약을 받아 발행주식 41,309주 중 1,450주를 1주당 금300,000원으로 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주식회사 파워텍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4번로 55 (진곡동)
사내이사 이구선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우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지 266-7801
• 동 통 433-1503 • 동 안 433-1503

중 구 • 남 통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통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명 051-1833
• 북 선 673-6836 • 북 안 376-7153
• 진 통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시 평 376-6511 • 통 말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화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